

## 한국경제지리학의 발전 성과와 미래를 위한 준비

한주성\*

---

**요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지리학 55년(1956~2010)의 제도적인 측면의 발전과 경제지리학 전공 학회회원의 연구 성과를 발달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제지리학은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지리학 요람기(1956~1962), 정립기(1963~1970년대 후기), 도약기(1980~1990년대 전기), 전환기(1990년대 후기 이후)가 그것이다. 한국 대학의 많은 지리교육과와 지리학과는 정립기와 도약기에 설립되었고, 총 연구물 편수(1,621건)의 44.4%가 2000년대에 발표되었으며, 연구 분야 중 광·공업지리학이 22.7%를 차지하였다. 연구물 중 경험적 접근방법이 약 2/3를 차지하였고, 연구 틀에서는 지역구조론과 공간 시스템론이 각각 약 40%를 차지하였다. 미래의 한국경제지리학 연구 분야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지식 등의 측면에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로 사회과학 발달에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어:** 제도적 접근방법, 양적 접근방법, 연구방법 틀, 한국경제지리학, 미래의 경제지리학

---

### 1. 서론

지역에 투영된 경제현상을 관찰하고 분석·고찰하여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하는 경제지리학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부문은 물론 이거니와 사회·문화 등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소들이 경제현상에 작용하는 원리를 찾아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점점 그 연구범위가 확대되고 또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발전성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많은 대학에서 지리교육과(지리교육전공)와 지리학과를 창립한 점이다. 그리고 이들 학과를 졸업하고 각 연구기관에 취업함으로써 영역의 활동범위도 넓혔다. 경제지리학 분야의 양적인 발전은 경제지리학 전공자수, 시기별·영역별 게재논문(단행본)편수, 학술대회 논문발

표 건수 등에서 파악할 수 있고, 질적인 발전은 경제지리학 각 분야 게재논문의 접근방법 등에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의 제도적인 측면의 발전과 경제지리학 전공 학회회원의 연구 성과를 발달사적 측면에서 고찰하여 앞으로의 연구 과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연구방법은 먼저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동향을 규정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또 시기구분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을 바탕으로 제도상의 발전 측면을 학과의 창립과 연구기관의 설립, 시기별 최종학위의 취득자수, 경제지리학 전공자의 최종 출신학교별로 파악하고자 한다. 또 경제지리학 연구의 양적인 파악을 위해 시기별, 연구 분야별로 발표된 국내 연구물의 추이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연구물이 많은 연구 분야와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농·임·수산업

---

\*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

지리학 분야에서 각종 접근방법을 적용한 최초의 논문 발표연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지리학 분야의 각종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연구 분야별 접근 방법 및 연구 틀별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향후 한국경제지리학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각종 문헌과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 『대한지리학회지(구 地理學)』와 『국토지리학회지(구 地理學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0년까지의 학회지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 기간은 경제지리학의 성립을 가져온 李廷冕의 석사학위논문 「서울市の 蔬菜 및 燃料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이 발표된 1956년부터 2010년까지로 한다.

## 2. 한국경제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韓柱成, 2007, pp.356-363)

### 1)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 조류의 규정요인

한국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동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분석관점이다. 분석관점에 대해 矢田(2003)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각 시기에 어떤 경제지리학 학파가 큰 영향력을 미쳤고, 그 학파가 어떤 사회정세 및 관련과학의 영향을 바탕으로 知的 영위를 행했으며, 학파의 형성을 규정하는 요인을 어떻게 보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경제지리학을 규정짓는 요인을 矢田의 연구(2003, pp.396-397)에 덧붙여 다음의 5가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지리학의 동향이다. 경제지리학의 분야에는 다방면의 연구자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지리학 전공자이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는 지리학에서 특히 사회과학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이동해 온 것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주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특징에서 경제지리학은 철저한 지역조사를 중시하고, 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사회나 문화 등 보다 넓은 관점에서 사고를 한다는 점, 자연환경과의 관계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등이 다른 지리학과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규정요인은 한국경제지리학이 평소에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해 온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과 나아가 같은 주제를 취급해 온 구미의 사회과학 분야이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에 그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표적인 것이 경제입지론 등 공간경제학과 관련된 분야, 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개발전략을 위해 구축된 저개발경제론, 나아가 세계시스템론이나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등 세계경제론, 신산업집적론이나 산업공간론 등 구미의 경제지리학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에 당연히 강한 영향을 끼쳤다.

셋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 경제지리학의 분석틀을 이론적으로 지탱하고 있는 경제·경영학의 기초이론이다. 입지론의 이론적 지주인 신고전경제학, 개발경제학, 세계시스템론이나 지역구조론에 깊은 영향을 미쳐온 마르크스 경제학, 최근의 풍토(millieu), 착근성(embeddedness) 등의 주요어를 낳은 신산업집적론, 경제공간론과 공통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진화경제학<sup>1)</sup>, 나아가 기업공간론의 척추(backbone)가 되는 기업경제학 등 다양한 경제·경영학이론도 아직 큰 지주가 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의 경제지리학자가 문제의식을 갖는 바탕에는 한국·세계의 지역문제이다. 특히 국내 및 세계수준에서의 지역격차 문제, 국내의 대도시 과밀문제나 과소지역문제, 세계수준에서의 저개발지역문제, 나아가 공간규모면에서 지역으로부터 지구적 규모에 이르는 환경·재해·자원문제 등 다양한 수준과 측면에서의 지역문제이다. 이들 지역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 실태 및 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지향, 나아가서 해결을 위한 정책제기가 경제지리학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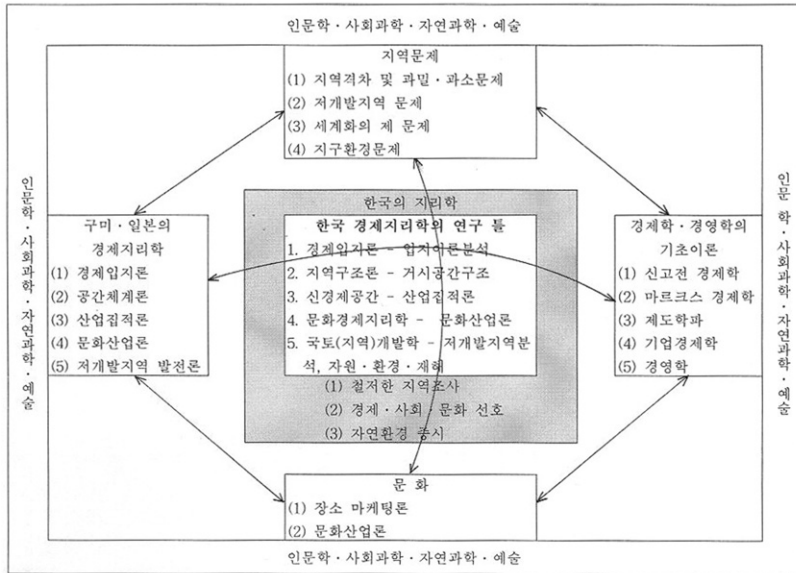


그림 1. 한국의 경제지리학 조류를 규정하는 요인

출처: 矢田, 2003, p.397을 수정·재작성하였음.

있다. 또 이것이 흥미본위의 조사에 매몰되거나 추상적인 모형의 조작에 몰입되지 않고 연구가 사회과학으로서 지탱해 온 원천이며, 시대의 많은 젊은 연구자를 끌어들이는 힘이기도 했다.

다섯째, 소득의 증대로 최근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경제지리학의 연구가 등장하게 되었다. 문화경제지리학이란 1980년대부터 조직 자본주의가 해체 자본주의로 자기 변신을 함으로서 후기 근대사회의 사회양식은 후기 대량 생산체제(post Fordism)로 이행되고, 그 생산과정은 물질적 노동과정보다는 기호(sign)의 산출과 그것이 조직화된 설계(design)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 특색이다. 따라서 해체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기호의 축적으로 상징되는 문화산업은 성찰적 축적(reflexive accumulation)의 대표산업이다. 장소 마케팅과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sup>3)</sup>은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문화상품이 문화적 요소가 體化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또 문화산업은 국내는 물론 다른 문화지역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제3문화(the third culture)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 금융 서비스나 문화산업이 집중된 세계도시(world city, global city)<sup>3)</sup>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산업의 지역적 분포와 그 원리를 규명하는 문화경제지리학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문화가 경제지리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5가지 규정요인이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을 가운데 두고 그림 1과 같이 배치하면 두 번째~다섯 번째의 규정요인간의 6가지 공간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知的 영위를 행하는 지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에서 먼저 지역문제와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이 만들어낸 지적 공간은 지리학에 영향을 강하게 미쳐 지역·환경문제 등의 지향이 강한 '지리학 지향학과'로 한국경제지리학 연구자의 대부분은 이 학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 구미·일본경제지리학과 문화

사이의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본질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국내외의 '문화경제지리학의 지향학파'가 된다. 나아가 문화와 경제·경영학 기초이론과의 사이에 형성된 지적 공간은 문화경제·경영학 등 지리학의 본질을 거의 가지지 않는 '문화 경제·경영학 이론 지향 학파'이다. 그리고 지역문제와 경제·경영학 기초이론 사이에서 형성된 지적 공간은 현대 국내 및 세계적인 지역·환경문제에 강한 관심을 가지면서 경제·경영학 이론으로 그 메커니즘을 해명하려는 '지역문제 지향 학파'로 지리학 본질의 영향이 약한 경제·경영학 출신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지역문제와 문화 사이에 만들어진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지향이 중간인 '지역문화 개발계획학파'로 지리학의 본질은 중간이다. 마지막으로 구미·일본의 경제지리학과 경제·경영학의 기초이론 사이에 만들어진 지적 공간은 지리학의 본질을 강하게 유지하는 '입지론 지향이 강한 학파'이다.

## 2)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의 시기 구분

역사가 길지 않은 한국경제지리학사의 시기를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기존의 시기구분을 한 徐贊基(1996, p.193)는 한국경제지리학의 발달을 1950년대 초창기, 1960년대 과도기, 1970년대 정착기, 1980년대 이후를 발전기로 정하여 기계적으로 구분한 느낌이 든다. 또 국토·지역개발의 연구동향에서 趙東奎(1976)는 1950년대를 성립시기, 1960년대를 접근시기, 1970년대를 발전시기로 구분했고, 이희연(1996; 2001, p.351)은 1974년 이전을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이에 따른 농경지의 이용, 산지·간척지 등의 개발,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토지분류 및 그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연구한 응용지리학 성립단계, 또 지역 간의 격차 분석과 해소방안의 모색, 지역개발과 지역정책에 대한 논의, 도농의 개발과 관리가 주축을 이룬 정착단계(1975~1984),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고, 특히 불균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 등이

이루어진 발전단계(1985~1994),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지역 간의 접촉이 빈번해지며 또한 환경문제와 삶의 질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대두된 1995년 이후를 성숙단계로 구분했다. 그리고 박삼옥(2005)은 한국지리학 연구의 시기구분을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1년 이후의 4시기로 구분했다. 그 후 Baik(2006)은 한국 인문지리학 발달의 시기구분을 1945~1970년을 설립 및 개편기(foundation and reorganization), 1971~1980년을 요람기(infancy), 1981~1990년을 성장기(growth), 1991~2001년을 도약기(jump and rush), 2001~2005년을 성숙 및 세계화기(maturity and globalization)로 구분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제지리학 연구의 주제와 접근방법으로 보아 李廷冕의 석사학위논문이 발표된 1956년부터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 『地理學』이 출간되기 이전인 1962년까지는 '경제지리학 요람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지리학 비전공자의 경제지리학 개론서가 발간되었고, 각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지리학 분야별 최초 석사학위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다음으로 1963~1970년대 후기까지를 '경제지리학 정립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대한지리학회 기관지인 『地理學』을 위시하여 각종 학술잡지에 경제지리학의 분야별 논문이 발표되고 계량적 분석방법도 등장하였다. 1980년대 전기부터 1990년대 전기까지 고도경제성장을 거친 시기를 '경제지리학 도약기', 1990년대에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한국경제지리학회가 창립되었고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 속에서 구미의 경제지리학의 영향을 한층 강하게 받고 지식기반산업<sup>4)</sup>이 발달한 1990년대 후기 이후를 '경제지리학 전환기'로 하면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 3. 한국경제지리학의 제도상 발전

우리나라 지리교육과(지리교육전공) 및 지리학과 의 창립을 교육대학교 교원<sup>5)</sup>을 제외하고 경제지리학 발달시기에 맞추어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먼저 요람기(1956~1962)에 10개의 학과가 있었는데, 1946년에 학과를 창립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최복현(경제지리학 담당 교원의 부임연도 1948년), 1948년에 학과가 창립된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서찬기(1960년 부임)가 경제지리학을 담당하였다. 또 1958년에 창립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는 육지수(1958년 부임)가, 같은 해에 창립한 신홍대학 지리학과에는 이정면(1960년 부임)이 경제지리학을 담당하였다(김영성, 1989, pp.39-45). 그러나 1951년에 창립한 이화여자대학교 지리교육전공(1989년 최은식 부임), 1957년에 창립한 정치대학 지리학과(야간부), 1962년의 공주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sup>6)</sup>에는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김재광은 1976년 부임)이 없었다. 그래서 요람기에 10개 학과(전공) 중에서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은 4명에 불과하여 개설학과의 40.0%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정립기(1963~1970년대 후기)에는 14개의 학과가 창립되었는데, 1962년의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는 형기주(1964년 부임), 1969년의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형기주(1970년 부임), 1971년의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1979년에 남기창 부임), 1972년의 성신여자사범대학 지리교육전공은 임한수(1974년 부임), 1973년의 상명여자대학 지리교육전공에는 최복현(1973년 부임), 1974년의 부산여자대학 지리교육과에는 임영대(1975년 부임), 1974년 효성여자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이명희(1975년 부임), 1975년 청주여자사범대학에는 허우궁, 이희열(각각 1976·1978년 부임), 1976년에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조승현(1980년 부임), 1978년 한국사회사업대학 지리교육과에는 오세창, 1978년의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최창조가 부임하여 이들 대학은 경제지리학 전공교

원이 있었다. 그러나 1963년의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 지리교육전공, 1976년의 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이 없었다. 그래서 14개 학과 중 12개 학과(85.7%)에는 전공교원이 있었다.

도약기에는 1980년에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가 창립되어 이학원(1982년 부임)이,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이희열(1982년 부임)이,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한주성(1983년 부임)이, 전남대학교 지리학과에는 조승현(1983년 부임)이, 1981년에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김부성(1988년 부임)이, 1982년 순천대학교 지리교육전공에는 이상석(1995년 부임)이, 1983년에 경상대학교 지리교육전공에는 곡철홍(1985년 부임)이, 1985년에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에는 장영진(2006년 부임)이, 1990년에 창립된 공주대학교 지리학과는 같은 대학교 지리교육과의 조창연(1981년 지리교육과 부임)이 1992년에 부임하였으나 현재는 전공 교원이 없으며, 1992년 창립된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에도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은 없다. 그래서 10개 대학교 중에 7개 학과(전공)에 경제지리학 전공자가 있었다. 끝으로 전환기에 개설된 학과는 없다. 그래서 2010년 현재 29개 지리교육과와 지리학과 중에서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이 없는 대학은 이화여자대학을 포함하여 7개 학과로 24.1%를 차지하나 요람기에서 도약기로 올수록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이 증가하여 한국의 경제지리학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지리교육과와 지리학과가 아닌 대학의 학과에서 경제지리학을 전공하는 교원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희연(2005년 부임), 서울시립대학교의 남기범(1996년 부임), 건국대학교 이병민(2010년 부임), 청강문화산업대학 2008년 부임), 부경대학교 권오혁(2002년 부임)·이정운(2010년 부임), 협성대학교 조영국(1997년 부임), 강원대학교 정준호(2007년 부임), 강릉원주대학교 김건석(1988년 부임), 충청대학교 정태홍, 초당대학교 이덕안, 경주대학교 유영준 등도 경제지리학 발전에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1.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의 대학별 변천

시기	개설학과와 경제지리학 전공 교원	계
요람기 (1956~ 19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서찬기-이보영)</li> <li>• 계명기독교대학 (현 계명대학교) 역사지리학과 (1965년 사학과로 개편)</li> <li>• 단국대학교 지리역사과 (1962년 사학과로 개편)</li> <li>• 부산대학교 지리지질학과 (이후 경북대학교 지리학과에 흡수·편입)</li> <li>•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최복현-황재기-황만익-박배균, 더글러스)</li> <li>•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육지수-박삼옥·허우궁·류우익-구양미)</li> <li>• 신홍대학교(현 경희대학교) 지리학과 (이정면-조동규·길용현-주성재·노시학)</li> <li>• 이화여자대학교 지리전공 (최운식)</li> <li>• 정치대학(현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이희연-김숙진)</li> <li>• 홍익대학교 지리학과 및 지리역사과 (1961년 폐과)</li> </ul>	10
정립기 (1963~ 1970년대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형기주-박찬석·박양춘-이철우)</li> <li>• 공주사범대학(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김재광·조창연-류주현)</li> <li>• 관동대학교 지리교육과</li> <li>•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형기주-이승철)</li> <li>• 부산여자대학 지리교육과(현 신라대학교 지리학과) (임영대)</li> <li>• 상명여자대학 지리교육과(현 상명대학교 지리학과) (최복현-김영성-정수열)</li> <li>• 성신여자대학 지리교육과(현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임한수-이금숙·이원호)</li> <li>• 수도여자사범대학(현 세종대학교)지리교육전공 (1984년 지구과학과 개편)</li> <li>•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조승현)</li> <li>• 전북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최창조-최운식-백영기)</li> <li>•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남기창-김학훈)</li> <li>• 청주여자사범대학(현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허우궁-이희열-한홍렬)</li> <li>•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오세창·최병두)</li> <li>• 효성여자대학교(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이명희-김영직·조성호-이상울)</li> </ul>	14
도약기 (1980년대 전기~ 1990년대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이학원-정성훈)</li> <li>• 경상대학교 지리교육전공 (곽철홍-이종호)</li> <li>•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김부성)</li> <li>• 공주대학교 지리학과 (조창연)</li> <li>•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이희열)</li> <li>• 순천대학교 지리교육전공 (이상석)</li> <li>• 전남대학교 지리학과 (조승현·이정록·안영진)</li> <li>• 제주대학교 지리교육전공</li> <li>• 충북대학교 지리교육과 (한주성)</li> <li>•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장영진)</li> </ul>	10
전환기 (1990년대 후기 이후)		0
계		34

자료: 金永聲, 1989, pp.32-39; 오홍석, 2004; 각 학과 홈페이지; 전화 인터뷰 자료.

그리고 각종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지리학 연구자를 보면 16개 기관에 23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국토연구원에 7명이 재직하고 있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3명, 대구경북연구원에 2명이고, 나머지 각 기관에는 한 명씩 재직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한국경제지리학 발달의 요람기에는 경제지리학 전공자가 연구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으나, 정립기에는 1969년 국

토계획조사연구단의 일원으로 근무하다가 1978년에 국토개발연구원이 개원되면서 유영휘가, 이어서 1979년에는 박양호가 각각 부임하여 두 명이 연구에 임하였다. 도약기에는 한국교통개발연구원 전신인 한국과학기술원 시스템 공학 센터에서 교통현상 관련 연구를 한 이상용(1983년 부임)를 포함하여 6명이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전환기에는 국토연구원의 김태환(1997년 부임)과 산업연구원의 김

표 2. 연구기관별 경제지리학 전공 연구원

설립시기	개설연구원과 경제지리학 연구자(취업연도)	기관수
요람기 (1956~1962)		0
정립기 (1963~1970년대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개발연구원(현 국토연구원, 1978년 개원) 유영휘 (1978~1998), 박양호 (1979), 이원섭 (1988), 류승한 (1992), 김태환 (1997), 임은선 (2003), 전성제 (2006), 서연미 (2007), 박미영 (2004~2008)</li> <li>• 중동문제연구소(현 산업연구원, 1976년 개원) 김선배 (1997)</li> <li>• 한국교육개발원(1972년 개원) 손용택 (1987~2003)</li> <li>•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1978년 개원) 손용택 (2003)</li> <li>• 한국주택공사(1962년 설립) · 한국토지공사(1975년 설립) (현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년 통합) 이현주 (2005)</li> </ul>	5
도약기 (1980년대 전기~1990년대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구권경제사회발전연구원(현 대구경북연구원, 1991년 개원) 최정수 (2002~2004, 2008), 이상용 (2005)</li> <li>• 통신정책연구소(1985년 개원)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주성 (1989), 이정협 (1994~1996)</li> <li>• 경기개발연구원(1995년 개원) 문미성 (2000)</li> <li>• 생산기술연구원 기술관리본부 (1989년 개원) (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09년 설립) 김명엽 (2005)</li> <li>• 교통개발연구원 (1986년 개원) (현 한국교통연구원) 이상용 (1983~2004)</li> <li>•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83년 개원) 조혜진 (1999)</li> <li>•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정책연구 평가센터(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87년 개원) 이정협 (2000), 김형주(2005), 최지선 (2003)</li> </ul>	7
전환기 (1990년대 후기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발전연구원(2003년 개원) 김진석 (2003)</li> <li>•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년 개원) 서민철 (2008)</li> <li>• 한국종합물류연구원(2005년 개원) 현기순 (2009년 11월~2011년 6월)</li> <li>• 한국해양수산개발원(1997년 개원) 최지연 (2001)</li> </ul>	4
	계	16

자료: 대한지리학회, 2009, 회원명부; 전화 및 이메일 조사.

표 3. 시기별 최종학위의 취득자수

최종 학위취득 시기	학위	최종학위				계(%)
	학사	석사	박사	불명		
요람기(1956~1962)						0(0.0)
정립기(1963~1970년대 후기)		2	1	2		5(2.9)
도약기(1980년대 전기~1990년대 전기)		7	6	29		42(24.4)
전환기(1990년대 후기 이후)		9	37	58	1	105(61.1)
불명		2	7	11		20(11.6)
계(%)		20(11.6)	51(29.7%)	100(58.1)	1(0.6)	172(100.0)

자료: 대한지리학회, 2009, 회원명부.

선배(1997년 부임)를 포함한 16명이 취업하여 연구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경제지리학 전공 연구원이 많이 취업해 경제지리학과 관련된 각종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지리학 활동영역이 확대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한다(표 2).

다음으로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에서 경제지리학을 제1의 전공자로 기술한 회원의 최종학위 취득을 시기별로 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3). 현재 회원의 반 이상이 박사학위 취득자이고, 석사학위 취득자가 약 30%를 차지한다. 그리고 1990년대 후기 이후에 최종학위를 취득한 회원이 60%를 넘고, 1980년대 전기~1990년대 전기에

취득한 회원은 약 2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학회회원 중 경제·사회지리학의 전공자는 1994년 122명이었으나 2004년에는 181명으로 증가하였으나(형기주, 2005, p.753), 2007년에는 한국경제지리학회 정회원수가 175명(학생회원 13명 포함)이 되었다. 그러나 2009년 대한지리학회 회원명부(생존회원: 1,463명)에 의거 본인의 제1전공을 경제지리학(농업·공업·교통지리학, 지역개발)이라고 기재한 회원수는 172명으로 전체 회원의 11.8%<sup>7)</sup>를 차지하는데 이들의 최종출신학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원의 약 23.3%가 서울대학교를 최종 출신학교로 하고 있으며, 미국 소재 대학교에서 최종학위를

표 4. 경제지리학 전공자의 최종 출신학교

최종 출신학교	출신자수(%)	최종 출신학교	출신자수(%)
서울대학교	40(23.3)	전남대학교	7(4.1)
미국 소재 대학교	26(15.1)	이화여자대학교	6(3.5)
경북대학교	17(9.9)	고려대학교, 일본·영국·프랑스 소재 대학교	각 5(2.9)
건국대학교	12(7.0)	성신여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각 4(2.3)
동국대학교	10(5.8)	기타	18(10.5)
경희대학교	8(4.7)	계	172(100.0)

자료: 대한지리학회, 2009, 회원명부.



취득한 회원은 15.1%이고, 이어서 경북대학교(9.9%), 건국대학교(7.0%), 동국대학교(6.0%), 경희대학교(4.7%)의 순이다(표 4).

그밖에 한국 경제지리학의 발달에 공헌한 것들을 보면, 1997년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과 2008년 한·일 경제지리학회 공동학술대회 등도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지리학회의 창립은 회원 간의 결집과 연구물의 증가를 가져오도록 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한·일 경제지리학회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경제지리학이 국제교류를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 4. 연구물의 양적 증가

다음으로 우리나라 경제지리학 분야의 연구발달을 국내의 연구물 편수에 의해 살펴보면 1956~2010년 사이에 모두 1,621편이 발표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보면, 2001~2010년 사이에 713편이 발표되어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971~1980년, 1991~2000년 사이가 각각 270편(16.7%), 1981~1990년 사

이가 231편(14.3%), 1961~1970년 사이가 119편(7.3%), 1956~1960년 사이가 18편으로 1.1%를 차지하여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물 편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표 5, 그림 2). 즉, 1994년 경제·사회지리학 전공 연구자수는 122명이고, 1991~1995년의 연구물 편수가 94편(한주성, 2009a, p.60)으로 5년간 1인당 0.77편이 발표되었으나, 2009년 경제지리학 전공 회원수가 172명이고, 2006~2010년 사이의 연구물수는 419편으로 5년간 1인당 2.44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어 3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지리학 연구자수가 많아진 점, 대학의 연구분위기 조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원업적평가 실시와 각종 연구비의 증가,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정부기관의 연구과제수의 증가 등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분야가 449편으로 27.7%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교통·정보산업 분야 260편(16.0%), 경제지역·지역개발 분야 239편(14.7%), 유통·서비스·중추관리기능 분야 198편(12.2%), 농·임·수산업 분야 194편(12.0%)의 순이다. 광·공업 분야, 즉 공업 분야의 연구물 편수가 많은 점은 우리나라가 공업을 기반으로

표 5. 한국 경제지리학의 시기별·연구 분야별 연구물 편수 변화

구분 시기	경제지 리학방 법론	경제지 리학방 법론	자원 및 환경 문제	소득과 자본 및 금융	노동력	농· 임· 수산업	광· 공업	유통· 서비스· 중추관 리기능	교통· 정보 산업	문화 산업	경제지 역·지 역개발	계(%)
1956~1960			5		1	4	2	0			1	18 (1.1)
1961~1970			10			49	25	6	3		22	119 (7.3)
1971~1980			15			70	64	21	35		55	270 (16.7)
1981~1990		4	2			20	106	38	57		4	231 (14.3)
1991~2000	1	17	7	5	9	24	85	45	51	1	25	270 (16.7)
2001~2010	3	17	35	26	26	27	167	88	114	78	132	713 (44.0)
계(%)	4 (0.2)	57 (3.5)	74 (4.6)	31 (1.9)	36 (2.2)	194 (12.0)	449 (27.7)	198 (12.0)	260 (16.0)	79 (4.9)	239 (14.7)	1,621 (100.0)

자료: 한주성, 2009a, p.60을 수정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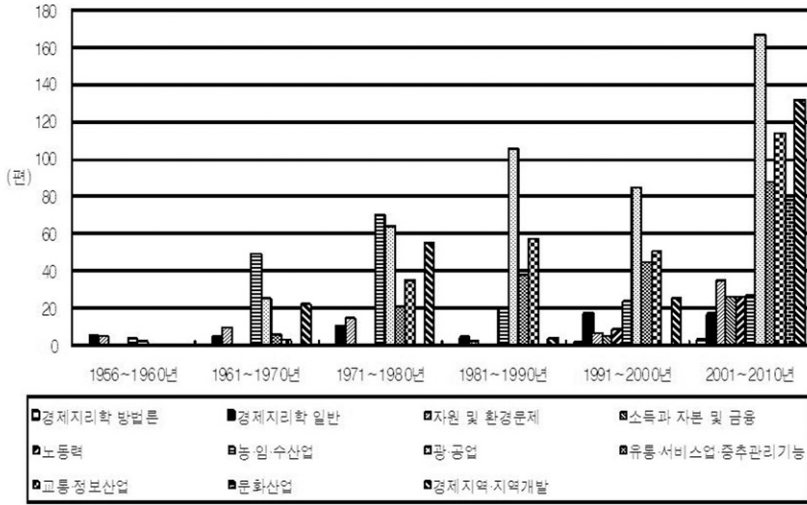


그림 2. 한국 경제지리학의 시기별·연구 분야별 연수물수 추이

자료: 한주성, 2009a, p.60을 수정하여 작성.

한 가공무역을 시작으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여 공업이 발달한 점, 최근에는 신 공간경제학파의 등장으로 공업지리학 분야의 연구방향 전환이 이루어져 이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통·정보산업 분야 연구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들 분야가 경제활동의 하부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점, 또 최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달과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지역·지역개발 분야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수차에 걸친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시와 최근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체제 이론의 적용 등이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또 유통·서비스·중추관리기능 분야의 연구물의 증가가 이루어진 이유는 소득의 증대로 소비가 증가됨에 따라 규제완화로 각종 새로운 유통업체가 등장하고, 신제품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기능의 활성화,自社제품의 지역 소비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무소 기능의 증가가 그 이유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농·임·수산업 분야는 1970년대까지 연구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그 이후는 안정적인 상태이다. 이는 농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문화산업이 2000년대에 들어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선진 국가들의 대규모 제조업체의 쇠퇴에 대신하는 문화산업의 발달과,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범으로 지역의 정체성, 이미지 부각 및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별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농·임·수산업 분야의 연구가 40.1%, 광·공업이 19.7%를 차지하였는데, 1970년대에는 농·임·수산업 분야의 연구가 25.9%로 연구물수는 많아졌으나 그 비율이 낮아졌고, 광·공업이 23.7%를 차지하여 그 비율은 높아졌다. 그리고 경제지역·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4%로 증가했다. 1980년대에는 총 231편의 연구물 중 광·공업 분야의 연구가 45.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통·정보분야(24.7%)의 순으로, 앞 시기에 비해 2·3차 산업 분야의 구성비가 높아진데 대하여 농·임·수산업 분야, 지역개발 분야의 연구물의 비율은 낮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전반기에도 나타나 광·공업분야의 연구물이 31.5%로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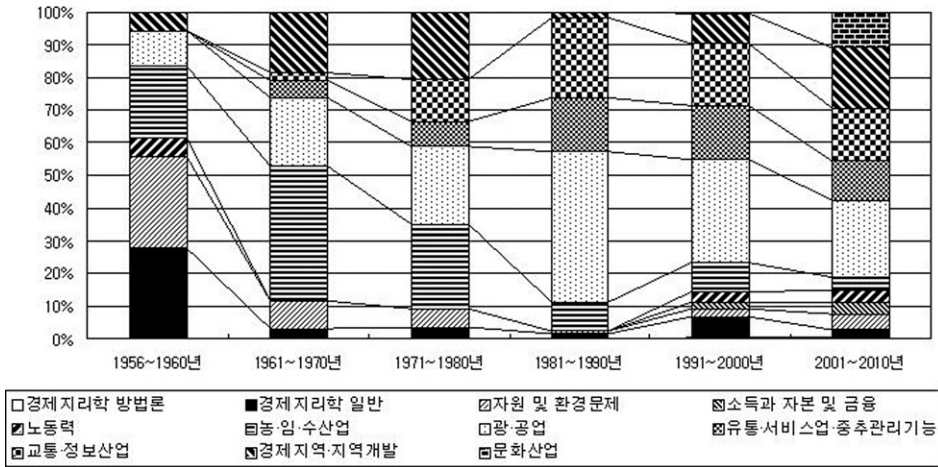


그림 3. 한국의 경제지리학 관련 연구물의 시기별·연구 분야별 구성 변화(1956~2010)

자료: 한주성, 2009a, p.60을 수정하여 작성.

높았고, 이어서 교통·정보분야(18.9%), 유통·서비스업·중추관리기능분야(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는 광·공업분야가 2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지역·지역개발분야(18.5%), 교통·정보분야(16.0%), 유통·서비스업·중추관리기능분야(12.3%), 문화산업분야(10.9%)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광·공업 분야의 연구물 구성비와 문화산업의 점유율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신경계 공간학과의 새로운 접근방법의 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한다(그림 3).

## 5. 연구접근방법의 발전

### 1) 선진국의 연구접근방법 변화

현대 지리학 연구의 발달사 측면에서 연구 성과를 분류할 때에는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경제지리학의 질

적 발전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상당부분은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해 지리적 현상의 일반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실제로 인문현상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사전에 선행적인 이론의 틀을 설정한 후 어떤 변수를 조사하고, 또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설적·이론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험적·귀납적 방법에 의해 규칙성을 밝히게 되는 것이다(李喜演, 1991, pp.511-512).

지리학에서의 논리실증주의 접근방법은 Harvey (1969)가 철학사상과 방법론을 지리학 연구에 도입시켜 과학적인 설명으로 그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李喜演, 1991, p.458). 그리고 1940년대부터 제시되었던 행동지리학을 성립시킨 사람은 1960년대의 R.W. Kates의 지각연구, J. Wolpert의 만족화 모형, P.R. Gould의 심상지도(mental map) 등이다. 그리고 지리학에서의 구조주의 접근방법은 인간의 문화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에서 표출된 내부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구성으로서의 구조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구조주의는 Levi-Strauss의 사상, 그리고 후

기 구조주의자의 대표자로 계보학적 권력분석을 제시한 M. Foucault, A. Giddens의 구조성(structuration) 이론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인문지리학에서는 급진주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이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은 종래 마르크스 경제학과 케인즈 경제학의 성과를 답습하여 새로운 설명을 시도한 프랑스의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이론이다. 이 이론은 사회적·경제적 동태의 해명을 기본과제로 자본주의의 재생산에서 개인과 집단의 행동 총체로서 사회관계의 구체적 형태를 규명한다. 조절이론은 1976년 M. Aglietta의 저서인 『자본주의 조절과 위기 - 미국의 경험-(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을 발간한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그 후 프랑스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발전·계승된 이론으로, 최근의 자본주의 구조재편에 관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조절학파는 국민경제를 부정적으로 파악한 세계시스템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는데, A. Lipiets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제도학과(institutional school)는 미국에서 19세기 말부터 1930년대에 걸쳐서 발달하였는데, 경제현상을 역사적으로 발전·진화하는 사회제도의 일환으로 파악하려 했는데, 이 학파의 창설자는 T. Veblen, W.S. Mitchell, T.R. Commons 등이다. 19세기 초부터 미국에는 영국 고전학과경제학이 도입되었는데 남북전쟁 이후의 급속한 독점기업의 발전과 농민·노동자의 빈곤화에 따라 고전학파의 이론과 정책을 비판하는 독일역사학파의 경제학과 사회정책사상이 유입되었다. 제도학파는 행동심리학·실용주의(pragmatism)·진화론·사회개량주의를 기초로 하여 고전학과경제학을 비판하고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귀납적·역사적 연구를 중요시하는 제도학과경제학을 성립시켰다. 1960년대 이후 제도는 신고전학파의 연구영역으로도 편입되어 제도경제학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경제사회학자 M. Granovetter(1973)의 사

회 네트워크론은 「약한 紐帶<sup>8)</sup>의 강도(The strength of weak ties)」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영어권 국가의 경제지리학의 연구방향은 관계성(relational)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계성 경제지리학은 자원의 존재나 비용요소라는 지역의 특질과 그에 대한 개별 행위자(기업, 사업소 등)의 합리적인 행동을 고찰하는 것으로만 불충분하다고 인식하여 행위자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제도·관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관계성 경제지리학의 潮流의 일부가 네트워크<sup>9)</sup>을 주목하는 것이다.

한편 생물학의 진화론이 사회과학의 영역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50년 A. Alchian의 연구가 제기된 이후, 1982년 J.M. Smith의 진화게임이론이 다양한 경제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신슈페터주의(Neo-Schumpeterian) 경제학의 기반을 제공한 1982년 R. Nelson과 S. Winter의 『경제변동의 진화이론(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저서가 발표되면서부터 진화경제지리학이 발달하였다.

## 2)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접근방법 변화

한편 우리나라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각 접근방법을 적용한 연구물의 시작연도를 보면, 경험적·귀납적 연구방법의 적용은 1956년에 李廷冕의 농업지리학 연구를 시작으로, 1957년의 陸芝修의 지역개발 논문, 1960년의 邢基柱의 공업지리학 연구, 1968년 李聖學의 역참제 연구, 1970년에 李東潤의 유통지리학의 연구, 元慶烈(1978)의 봉수망 연구, 1999년에 김숙진의 문화산업 중 장소 마케팅의 연구가 각각 이루어졌다. 그 후 논리실증주의 접근방법<sup>10)</sup>은 농업지리학 분야에서 한국농업의 지역구조를 분석한 연구(徐贊基, 1971)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어 서찬기는 다중회귀방정식을 이용하여 농업지역의 분포요인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행동주의 접근방법은 1980년 李鶴源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 후 김기혁(1999a; 1999b)은

농업의 산업화에 대비한 농산물 무역과 환경농업, 즉 농산물 개방화에 따른 질 높은 농산물의 공급을 위한 환경농업정책과 농민의 태도에 관한 보고서와 번역서를 출간하였다. 한편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은 1989년 禹璣燮에 의해 진주시 주변 농업지역에 적용되었다.

또 공업지리학 분야에서의 논리실증주의는 Park(1981)에 의해 우리나라와 미국 조지아 주를 대상으로 제조업의 입지 변화에 처음 적용되었고, 또 그는 1994년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의 이론과 실제에 네트워크론을 처음 적용하였다. 그리고

행동주의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공업의 의사결정을 파악하는 이희열(1982)의 연구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조절이론의 연구<sup>11)</sup>는 Lee(2000)에 의해 우리나라 섬유·의류공업의 위기와 재구조화에서 행해졌고, 제도주의 입장<sup>12)</sup>은 이철우·이종호(2004)에 의해 대구지역의 벤처 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의 연구에, 진화론적 경제지리학의 연구는 Lee(2002)가 우리나라 금융위기에 당면한 기업 재구조화를 분석하는데 적용하였다.

유통지리학의 분야의 논리실증주의 연구는 韓柱成(1974)의 사과유통을 중력모형에 적용하였고, 행동주

표 6. 접근방법에 의한 한국 경제지리학의 연구 시작연도

구분	경험주의	논리 실증주의	행동주의	구조주의 (구조성이론)	정치경제학 (조절이론)	제도주의	네트워크론	진화경제학
농·임·수산업 지리학	李廷勉 (1956)	徐贊基 (1971)	李鶴源 (1980)		禹璣燮 (1989)		김기혁 (2003)	
공업지리학	邢基柱 (1960)	Park (1981)	李熙悅 (1982)		Lee (2000)	이철우· 이종호 (2004)	박삼옥 (1994)	Lee (2002)
유통지리학	李東潤 (1970)	韓柱成 (1974)	崔雲植 (1972)				張美花· 韓柱成 (2009), 한주성 (2009)	
교통지리학	李聖學 (1968)	李廷冕· Roberts (1977)	許宇巨 (1985)		최병두 (2010)		이희연· 김홍주 (2006 a, b)	
정보지리학	元慶烈 (1978)	朴秀乘 (1977)	이정록· 김재철 (1993)				허우궁 (2003), Shuguang Liu and Weidong Liu(2003)	
문화산업	김숙진 (1999)	이정록· 안종현 (2004)			이무용 (2006)	최정수 (2007)	박경숙 (2005)	
지역개발론	陸芝修 (1957)	金庚星· 朴英漢 (1977)	金仁 외 (1994)		안영진 (1999)	최병두 (2007)	이철우 외 (2003)	

자료: 대한지리학회지(구 地理學), 국토지리학회지(구 地理學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0년 최종호까지.

의는 소비자의 구매행동을 연구한 崔運植(1972)에 의해서, 네트워크론의 적용은 장미화·한주성(2009)의 충북 음성군 접목선인장의 글로벌 상품사슬 연구와 한주성(2009b)의 상품·교통·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에서 이루어졌다.

교통지리학 분야에서 논리실증주의는 李廷冕·Roberts(1977)에 의해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군 무료고속도로의 평가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행동주의 접근방법은 許宇垣(1985; 1986)에 의해 서울주민의 시내 교통수단에 대한 인식과 교통수단 선호분석에 각각 적용되었으며, 정치경제학적 분석은 최병두(2010)의 경부고속도로의 이동성과 구획화의 연구에서 이루어졌고, 네트워크론의 적용은 이희연·김홍주(2006a, b)가 1980~2000년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와 서울대도시권의 통근 네트워크 구조분석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정보지리학 분야의 논리실증주의는 朴秀秉(1977)에 의해 매스 미디어의 공간 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행동주의 연구는 이정록·김재철(1993)의 광주시 하이텔(HiTEL) 서비스의 확산 및 이용행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네트워크론은 허우궁(2003)에 의해 인터넷 하이퍼링크로 본 도시 네트워크에서 분석되었고, 또 Shuguang Liu and Weidong Liu(2003)는 기업의 국제화를 새로운 정보와 정보기술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문화산업의 경우 논리실증주의는 이정록·안중현(2004)의 곡성심청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결정요인 연구에 적용되었고,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이무용(2006)의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제도적 연구는 최정수(2007)가 발표한 경북 영상 로케이션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이루어졌고, 네트워크론은 박경숙(2005)의 대구 문화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의 공간성과 경영특성의 연구에 이어 주성재(2006)의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에 적용되었다.

끝으로 지역개발론의 논리실증주의 연구는 金庚星·朴英漢(1977)의 경제적 건전성(economic

health)의 지역적 불균형성에, 행동주의는 김인 외(1994)의 국토관리의 방향정립을 위한 전문가 집단에 의한 국토진단의 연구에 적용되었다. 또 안영진(1999)은 이탈리아의 국가발전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하였고, 네트워크론은 이철우 외(2003)에 의해 지역혁신체제에 있어 지역개발기구의 역할을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개발기구를 사례로 분석한 연구에 적용되었다(표 6). 우리나라 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은 대체로 1990년대 전반까지 경험주의와 논리실증주의 및 행동주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1995년 이후에는 구조주의에 바탕을 둔 정치경제학 및 제도주의, 네트워크론, 진화경제학의 접근방법이 다루어져 구조주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의 접근방법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20~30년 뒤늦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지리학에서 양적으로 연구물이 많은 분야와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농·임·수산업 지리학 분야에 대해 대한지리학회지(구 地理學)와 국토지리학회지(구 地理學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물의 접근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대한지리학회지는 1963년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나 1966년에 제2호가, 1968년에 제3호가 발간되었다. 그 후 1969년부터 매년 한 호씩 발간되었으며, 1974년부터 1년에 2호씩 발간되다가 1991~1992년에는 연 3호씩, 1994~1997년까지는 영문호 한 호를 포함하여 연 4호씩 발간되다가 1998년에 국제심포지엄의 영문 특집호(Human, Culture & Environment) 발간을 계기로 연 5호가 발간되었다. 그 후 영문호를 포함하여 1999년까지 매년 5호를 발간하다가 2003년부터 영문호 1호를 추가하여 연 6호를 발간하였으나 2010년부터 영문호는 투고자의 부족으로 폐지되고 연 6호씩 발간하고 있다. 또 한국지리교육학회는 1973년에 창립하여 2005년 국토지리학회로 학회명을 바꾸었고, 학회지는 地理學研究로 창간하여 1973년에 1호를 발간하였고 그 후 1976~1978년, 1980~1989년 사이에

표 7. 접근방법에 의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편수

구분	경험주의	논리실증주의	행동주의	구조주의 (구조성 이론)	정치경제학 (조절이론)	제도주의	네트워크론	진화경제학	계
농·임·수산업 지리학	56	7	3				1		67
공업지리학	124	15	3		2	4	74	3	225
유통지리학	57	16	6				3		82
교통지리학	75	41	13		1		13		143
정보지리학	20	9	3				5		37
문화산업	42	8	3		2	1	9		65
지역개발론	141	15	3		2		9		170
계(%)	515 (65.3)	111 (14.1)	34 (4.3)	0 (0.0)	7 (1.0)	5 (0.6)	114 (14.4)	3 (0.4)	789 (100.0)

자료: 대한지리학회지(구 地理學), 국토지리학회지 (구 地理學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0년 최종호까지에 게재된 논문편수임.

각각 연 1호가 발간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연 2호, 1997년에는 연 3호, 1998년부터 연 4호씩 발간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학회지명을 국토지리학회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한국지역지리학회지는 1995년에 창립하여 그 해 한국지역지리학회지를 1호 발간하고 1996년부터 연 2호, 1999년부터는 연 3호, 또 2001년부터는 연 4호, 2005년부터는 연 6호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한국경제지리학회지는 1998년 창간호와 더불어 2호를, 1999년에는 1·2호 합본을 발간하였다. 그 후 2004년부터는 연 3호, 2007년부터는 연 4호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도시지리학회지는 1998년 창간호를 발간하였고, 1999년부터는 연 2호, 2005년부터는 연 3호 발간하고 있다.

이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분야별 접근방법을 보면,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은 전체 논문편수(789편)의 65.3%로 약 2/3를 차지하여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최근에 등장한 네트워크론(14.4%), 계량적 분석을 주로 한 논리실증주의(14.1%)의 순이다. 이를 연구영역별로 보면,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은 농·임·수산업 영역이 83.6%로 가장 많으며, 이

어서 지역개발론 분야에서는 82.9%, 유통지리학 영역은 69.5%, 문화산업 분야는 64.6%, 정보지리학 분야는 54.1%를 차지하였다. 공업지리학 영역은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이 55.1%, 네트워크론이 32.9%인데, 특히 한국경제지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48.9%가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것이다. 계량적 분석이 많은 교통지리학 분야는 경험적·귀납적 접근방법이 52.4%, 논리실증주의가 28.7%를 차지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경제지리학은 각 연구분야에 따라 가능한 접근방법이 다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각 영역에서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표 7).

### 3) 한국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변화

이 절에서는 미시적·거시적 신고전학과와 마르크스 경제학, 경제학과 지리학, 이론과 실재라는 이원론적 틀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한국경제지리학은 어떤 분류의 균형상에서 어떻게 성립되었는가를 엿보고자 하지만 현재의 그 균형은 크게 붕괴되어 가고

있다. 현재 어떠한 균형점을 새로운 관점으로 할 것인가는 연구 접근방법 틀의 전개에서 매우 주목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경제지리학의 전환기 이전 연구 틀은 지역구조론으로, 이는 산업입지론과 지역 시스템론, 토지이용론, 국토(지역)개발론, 지역경제론으로 구성된다(韓柱成, 2007, pp.367-369). 산업입지론은 일반사회에서 경제행위를 행하는 장소 및 그들의 장소를 선택하는 행위에 관한 이론이고, 지역 시스템론은 국민경제의 한 단위로서 산업구조, 재화·서비스, 소득·자금의 지역적 순환으로, 이들의 집합에 의해 형성된 다양한 산업지역과 크고 작은 경제권의 중층적 편성, 교통·통신망 등 경제지리학의 기본개념을 조작하면서 국민경제의 공간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할 수 있다(矢田, 2000, p.301). 그리고 토지이용론은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효율적인 경제활동의 장소로서 지역 간의 불균형 속에서 이루어지는 토지관리를 말하는 것이고, 국토개발론은 과소·과밀·불황·문제지역의 진흥과 성장촉진지역의 국토상 분산으로 균형화하려는 다극형성적인 국토정책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실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론은 한 국가를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중층적 단위지역 경제를 편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矢田編, 1990, pp.20-25).

그런데 지역구조론은 폐쇄 시스템(closed system)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이라는 미시적 공간행동을 기본으로 그 집합이 만들어낸 거시경제의 공간 시스템을 파악하는 논리를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경제를 개방한 블록경제, 나아가 세계경제의 공간 시스템을 파악하는 방법론으로서 유효성을 갖는다(矢田, 2000, p.301). 그리고 오늘날 세계적으로 경제지리학이 부활하고 재생되며, 또 경제학 시스템에서 위치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지위가 급상승하고 있고, 이들 성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필연적인 흐름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환기의 한국경제지리학 연구 틀의 구축은 현대경제의 주요어가 세계화와 국지화이고, 네트워크화, 신경제 공간학의 등장 및 정보화 사회에서 각 연구 틀을 묶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공간 시스템·네트워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경제의 공간 시스템과 네트

표 8. 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에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편수

구분	시기 틀	요람기	정립기·도약기	전환기		계(%)
		지역구조론		공간 시스템론	공간 네트워크론	
농·임·어업지리학		-	38	27	1	66(8.4)
공업지리학		-	95	51	79	225(28.5)
유통지리학		-	49	30	2	81(10.3)
교통지리학		-	73	57	14	144(18.3)
정보지리학		-	15	16	6	37(4.7)
문화산업		-	25	31	8	64(8.1)
지역개발론		-	51	111	10	172(21.8)
계(%)		0(0.0)	346(43.9)	323(40.9)	120(15.2)	789(100.0)

자료: 대한지리학회지(구 地理學), 국토지리학회지(구 地理學研究),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경제지리학회지, 한국도시지리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0년 최종호까지 게재된 논문편수임.



워크는 세계경제·국민경제·지역경제의 공간 시스템이라는 공간 스케일의 면에서 분류하여 살펴볼 수 있고, 또 기업공간, 다국적 기업, 세계화 통합기업에서 기업경제의 공간 네트워크, 컴퓨터의 사회적 침투와 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융합된 정보화에 의한 정보경제의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도 고찰할 수 있다(韓柱成, 2007, pp.367-369).

그래서 본 절에서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 틀은 전환기 이전의 정립기와 도약기에서는 지역구조의 틀로, 전환기에는 공간 시스템과 공간 네트워크 틀로 나눌 수 있어 그간의 학회지 발표논문을 분류해 보면 표 8과 같이 지역구조가 43.9%, 공간 시스템이 40.9%로 이들 두 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공간 네트워크는 15.2%이다. 이를 영역별로 보면 공업지리학 영역은 지역구조의 연구 틀이 42.2%, 공간 네트워크가 35.1%로 최근 네트워크의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론은 공간 시스템이 64.5%로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나, 농업·유통·교통지리학 영역은 지역구조론이 50%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대해 정보지리학과 문화산업 영역은 공간 시스템 틀의 연구가 지역구조 틀보다 더 높았다.

## 6. 한국경제지리학의 연구과제

한국의 경제지리학 역사는 매우 짧으나 그 동안 대학에 지리교육과, 지리학과와 증설로 경제지리학 연구자가 많아지고, 또 연구자의 최종학력도 높아져 연구의 역량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전공 분야에서 연구물수가 균형 있게 발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업지리학·지역개발 분야 등과 같이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기적으로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도입된 접근방법이나 연구 틀에서도 편식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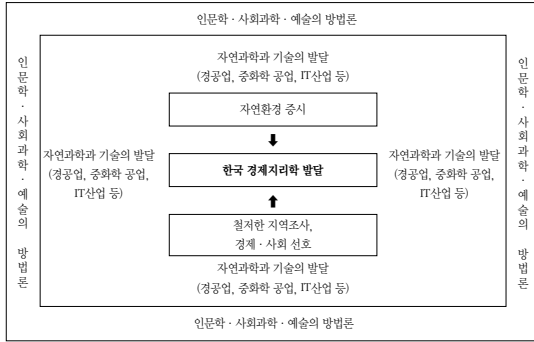
농업지리학 분야에서는 농업지역의 구조를 밝히고

난 후 이렇다고 할 만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네트워크론의 관점에서 상품사슬, 식료지리학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각 분야에서 재화·서비스, 소득·자금의 지역적 순환과 관련된 공간 시스템의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생명공학, 인터넷 및 정보통신과 관련된 융합학문(convergence studies)의 내용을 대상으로 경제지리학 각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경제지리학은 인문학·사회과학·예술의 방법론이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도모하여 나타난 지역의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을 중시하는 경제지리학 영역이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통해 방법론의 발달을 꾀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예술의 방법론에 영향을 미쳐 나타난 지역의 경제현상을 경제지리학이 중시하는 자연환경과 경제·사회뿐만 아니라 문화, 지식 등의 측면에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통해 방법론을 발달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그림 4). 그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회과학분야에서 네트워크론이 등장하고 이것이 경제지리학 발달에 영향을 끼쳐 각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래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창의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通涉(consilience)의 시대이므로 이러한 사회적 메가트렌드에 발맞추어 더욱 독자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들이 지역에 반영시킨 경제현상들을 연구하는데 지식에 기반을 둔 접근방법의 대두가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지리학의 접근방법이나 연구 틀은 어디까지나 일본이나 구미의 것들을 도입하여 한국의 경제현상에 지역적·공간적으로 적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지리학은 서구의 방법론을 모방 → 따라잡기 [(capture), 파일화] → 혁신 → 창조의 과정에서 따라잡기에 급급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벗어나고, 또 한국적인 경제지리학의 발달을 위

(과거)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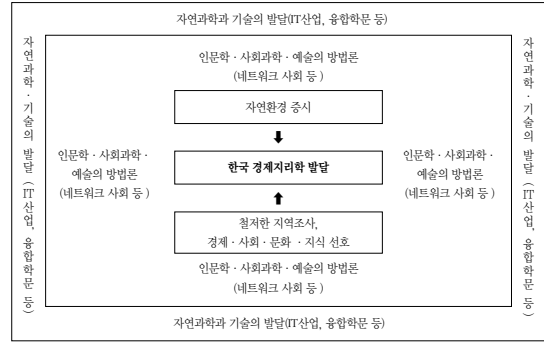


그림 4. 과거와 미래의 한국경제지리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해서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 사회 · 문화 · 지식 등의 측면에서 철저한 지역조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론의 개발과 연구방법으로 경제의 공간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회과학 발달에 기여하여 연구인력 풀의 확대를 가져와야 하겠다.

### 주

- 1) 제도의 핵심적인 주체의 인간과 기술의 바탕이 되는 지식의 진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진화와 생물진화가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물생태계와 마찬가지로 인간생태계도 진화하며 이 가운데 지식의 진화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 2) 이 용어는 유럽의 진보의 뿌리인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대학 사회문제연구소가 모태가 된 프랑크푸르트학파인 T. Adorno와 M. Horkheimer가 1947년에 발간한 그들의 저서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ärung)』에서 문화의 대중화를 비판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것은 문화산업 부문에서 다국적 기업의 등장과 이에 따른 국가 간의 문화적 지배와 종속,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문화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과 육성 등의 문제가 국가정책의 관심 대상으로 부상한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 3) 세계도시는 R.B. Cohen, J. Friedmann이 이름 붙였으며,

- 다국적기업의 출현과 정보 · 통신의 발달, 세계무역기구(W.T.O) 체계의 등장으로 세계경제를 통제 ·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도시로 세계의 중추관리기능을 가진 결절지를 말한다.
- 4) 지식기반산업이란 시장수요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인간의 창의성과 기술융합, 즉 지식의 적극적인 활용에 기반을 둔 산업을 말한다.
  - 5) 현재 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중 부산교육대학교 황홍섭과 광주교육대학교 홍기대, 제주대학교 정광중은 경제지리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과거에는 목포교육대학 유왕렬 뿐이었다.
  - 6) 1964년에 폐과되었으나 1965년에 사회교육과로 복과되었음(金永鑿, 1989, p.36).
  - 7) 전공별로 보아 지리교육이 289명으로 19.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도시지리학(도시경제 · 도시계획 · 도시공학 포함) 185명(12.6%), 역사문화지리학 105명(7.2%), 지형학 102명(7.0%)의 순이다.
  - 8) Granovetter(1973)는 유대 관계성의 강도를 ‘시간량, 친밀도, 정서적인 강도, 상호 돕기’라는 척도로 정의하였다. 약한 유대라는 것은 접촉빈도가 낮고, 양자의 관계성이 얇은 지인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다.
  - 9) H.W.C. Yeung(2005)은 기업 내(내부조정), 기업 간(합병사, 하청, 전략적 제휴 등) 및 기업 외(국가, 연구시설, NPO, NGO 등)에 있어서 착근된 경제적, 비경제적 관계가 통합 · 조정된 세트(set)를 네트워크라 했다.

- 10) 논리실증주의 연구는 거의 없으나 계량적 분석방법을 하였으면 이에 포함시켰고, 그 수준은 Yeates(1974)의 계량지리학 개론에 기재된 내용으로 기준을 삼았음.
- 11) 우리나라에서 조절이론에 대한 연구는 高泰卿(1992)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음.
- 12) 우리나라에서 제도주의 연구는 Choi(1995)에 의해 처음 연구되었음.

### 참고문헌

高泰卿, 1992, "1980년대 韓國 資本主義의 발달과 空間構造의 變化," 地理學 27, pp.232-242.

金庚星·朴英漢, 1977, "Economic Health of the 地域의 不均衡性에 관한 研究," 地理學 16, pp.11-23.

김기혁, 1999a, "영국의 환경농업정책과 농민의 태도 연구,"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지원 대학해외과건교수 연구보고논문.

김기혁 역, 1999b, 서유럽의 농업변화, 서울: 한올아카데미.

김기혁, 2003, "부산 김해평야 농업지역 친환경농업의 행위자-연결망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 pp.276-296.

김숙진, 1999, "장소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 -고양시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4, pp.209-225.

金永聲, 1989, "韓國 大學 地理系 學科의 成長," 地理學研究 14, pp.31-50.

金仁·柳佑益·許宇巨·朴英漢·朴杉沃·柳根培·崔秉瑄, 1994, "國土管理의 方向定立을 위한 國土診斷 -專門家集團의 問題意識을 中心으로-", 대한지리학회지 29, pp.16-38.

박경숙, 2005, "대구 문화 콘텐츠 산업 가치사슬의 공간성과 경영특성,"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삼옥, 1994, "첨단산업발전과 신산업지구 형성 -이론과 실제-", 대한지리학회지 29, pp.117-136.

박삼옥, 2005, "한국의 지리학연구 60년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40, pp.770-788.

朴秀秉, 1977, "韓國 매스미디어의 空間擴散에 관한 研究 -1945~1977-", 地理學 16, pp.55-78.

徐贊基, 1971, "韓國農業의 地域構造에 관한 研究 -立地分析을 中心으로-", 文敎部, 學術研究報告, 社會科學系 3,

pp.103-155.

徐贊基, 1996, "한국 경제지리학 반세기 -연구성과와 과제-", 토론문, 대한지리학회지 31, pp.190-196.

안영진, 1999, 현대 이탈리아의 國家發展과 地域의 政治經濟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 pp.75-89.

오홍석, 2004, 현대한국지리학사, 서울: 북메이트.

禹璠燮, 1989, "都市周邊農業地域의 政治經濟學的 接近 -晋州市 周邊地域을 事例로-",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元慶烈, 1978, 朝鮮時代 烽燧網에 대한 考察 -地理的 側面에서의 接近-, 社會科敎育 11, pp.28-35.

陸芝修, 1957, "國土綜合開發計劃의 基本的 課題," 財政 6(7).

李東潤, 1970, "서울 近郊地域의 花卉栽培에 對한 立地와 花卉商品의 流通類型에 對한 研究," 서울대학교 敎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이무용, 2006, "장소마케팅 전략의 문화적 개념과 방법론에 관한 고찰," 대한지리학회지 41, pp.39-57.

李聖學, 1968, "韓國 歷史地理 研究 -陸上交通(主로 驛站制를 中心으로)에 關한 考察-", 慶北大學校 論文集 12, pp.95-116.

이정록·김재철, 1993, "광주시 하이텔(HiTEL) 서비스의 확산 및 이용행태," 地理學 28, pp.123-136.

이정록·안종현, 2004,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곡성심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 pp.642-653.

李廷冕, 1956, "서울市の 蔬菜 및 燃料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 論文.

李廷冕 and Roberts, N.K., 1977, "The testing of freeway appraisal variables in Salt Lake county, Utah," 地理學研究 3, pp.9-21.

이철우·이종호, 2004, "지방대도시 벤처생태계의 제도적 및 문화적 환경 -대구지역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7, pp.1-27.

이철우·이종호·김명엽, 2003, "지역혁신체제에 있어 지역 개발기구의 역할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지역개발기구(ERVET 시스템)를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 pp.1-20.

李鶴源, 1980, "人蔘 栽培地域의 形成과 전파에 관한 研究 -강화도를 中心으로-", 地理學 22, pp.87-101.

李喜演, 1991, 地理學史, 서울: 法文社.

- 이희연, 1996, “응용지리학 일반의 회고와 전망,” *대한지리학회지* 31, pp.329-345.
- 이희연, 2001, “지리학의 응용과 참여,”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서울: 한울아카데미, pp.348-390.
- 이희연·김홍주, 2006a,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1980~2000년,” *국토 계획* 41(1), pp.133-151.
- 이희연·김홍주, 2006b, “서울대도시권의 통근네트워크 구조 분석,” *한국도시지리학회지* 9, pp.91-111.
- 李熙悅, 1982, “韓國工業의 意思決定에 關한 研究,” *地理學論叢* 9, pp.41-58.
- 張美花·韓柱成, 2009, “충북 음성군 접목선인장의 글로벌 상품사슬,” *대한지리학회지* 44, pp.56-76.
- 趙東奎, 1976, “應用地理學,” *地理學* 13, pp.50-56.
- 주성재, 2006,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과 공간적 집적 특성 - 새로운 부흥의 중심지로서 서울 강남지역의 등장?-,” *대한지리학회지* 41, pp.245-266.
- 최병두, 2007,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이행과 공간정책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3, pp.82-103.
- 최병두, 2010, “경부고속도로 -이동성과 구획화의 정치경제 지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 pp.312-334.
- 崔運植, 1972, “消費者的 購買行爲에 關한 研究,” *地理學* 7, pp.40-52
- 최정수, 2007, “경북 영상로케이션산업 활성화방안 -경북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 pp.116-136.
- 韓柱成, 1974, “사과의 流通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韓柱成, 2007, “한국경제지리학 반세기의 연구들 조류,”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 pp.355-376.
- 한주성, 2009a, *경제지리학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서울.
- 韓柱成, 2009b, “상품·교통·공급사슬개념과 관련된 지리학의 연구와 과제,” *대한지리학회지* 44, pp.723-744.
- 許宇亘, 1985, “서울住民의 市內 交通手段에 대한 認識,” *地理學論叢* 12, pp.1-12.
- 許宇亘, 1986, “多次元尺度法에 의한 서울住民의 交通手段 選好分析,” *大韓交通學會誌* 4, pp.12-27.
- 허우궁, 2003, “인터넷 하이퍼링크로 본 도시네트워크,” *대한지리학회지* 38, pp.518-534.
- 邢基柱, 1960, “京仁工業地帶의 工業分布와 構造類型,” 서울대학교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형기주, 2005, “숫자로 본 대한지리학회 60년,” *대한지리학회지* 40, pp.748-761.
- 矢田俊文 編, 1990, *地域構造の理論*,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矢田俊文, 2000, “現代經濟地理學と地域構造論,” 矢田俊文·松原宏 編, *現代經濟地理學 -その潮流と地域構造論-*,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pp.279-312.
- 矢田俊文, 2003, “戰後日本の經濟地理學の潮流 -經濟地理學會50周年によせて-,” *經濟地理學年報* 49, pp.395-414.
- Baik, Seonhae, 2006,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Korean human geography, *The Human Geography* 58, pp.572-587.
- Choi, Jae-Heon, 1995, Institutional approaches in geography: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loan financial system,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0, pp.364-388.
- Granovetter, M.,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ety* 78, pp.1360-1380.
- Harvey, D., 1969, *Explanation in Geography*, London: Edward Arnold.
- Lee, Jong-Ho, 2002, Corporate restructuring in the face of the Korean financial crisis and its implications for learning and adaptation: An evolutionary and competence-based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7, pp.480-497.
- Lee, Sung Cheol, 2000, Crisis and restructuring of the Korean textile and clothing industry between 1980 and 1997: Geographical extension of productive process and intensive accumulation regimes,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3, pp.53-79.
- Park, Sam Ock, 1981, *Locational Change in Manufacturing: A Conceptual Model and Case Studies*, Ph D.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Georgia.
- Shuguang Liu and Weidong Liu, 2003, The role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A case study of Haier,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8, pp.400-412.

Yeates, M., 1974, *An Introduction to Quantitative Analysis in Human Geography*, New York: McGraw-Hill.

Yeung, H.W.C., 2005, Rethinking relational economic geography,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pp.37-51.

교신: 한주성,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개신동)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전화: 043-261-2697, 팩스: 043-276-2693, 이메일: jshan@chungbuk.ac.kr,

Correspondence: Ju-Seong Ha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52 Naesudong-ro(Gaesin-dong), Heungdeok-gu, Cheongju city, 361-763 Korea, Tel: +82-43-261-2697, Fax: +82-43-276-2693, e-mail: jshan@chungbuk.ac.kr

최초투고일 2011년 8월 16일

최종접수일 2011년 9월 2일

## **Research Results and Preparation for the Future Economic Geography in Korea**

Ju-Seong Han\*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institution, quantity and approach methods of research results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during the last fifty-five years (1956-2010) and to offer the prepar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The history Korean economic geography can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period of cradle' (1956-1962), 'period of establishment' (1963-later 1970s)', 'period of leap (the former half of 1980s-the former half of 1990s)', and 'period of transition (since later 1990s)'.

Many departments of geography education and geography have been founded in the 'period of establishment' and 'period of leap'. Among the total research matters (1,621), 44.4 percent of research results have been made in 2000s and the most researched field was that of manufacturing geography, which occupied 27.7 percent. In the approach methods, about two-thirds of the results are the empirical inductive approach and the research frameworks method which clarified the regional structures and theory of spatial system occupied each about 40 percent.

In the future, each research field of Korean economic geography is expected to take more serious view of nature environment, thorough regional survey, and preference of economy-society-culture-knowledge in the research framework of spatial network theory

**Keywords** : institution approach methods, quantity approach methods, research frameworks method, Korean economic geography, future economic geography

---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i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